

## 한국 고대의 여신신앙

Goddess belief in Ancient Korea

---

저자 (Authors)	전호태 Jeon, Ho-Tae
출처 (Source)	<a href="#">역사와경계 108</a> , 2018.9, 1-28(28 pages) <a href="#">History &amp; the Boundaries 108</a> , 2018.9, 1-28(2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부산경남사학회</a>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917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9179</a>
APA Style	전호태 (2018). 한국 고대의 여신신앙. 역사와경계, 108, 1-2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7 11: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 고대의 여신신앙\*

전 호 태\*\*

### 목차

- I. 머리말
- II. 여신의 모습
  - 1. 유적, 유물
  - 2. 기록
- III. 어머니, 배우자, 인도자
- IV. 기억과 망각 사이
- V. 맺음말

### 국문초록

한국의 신석기 유적에서 수습되는 여성상은 선사시대의 여신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유물이다.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여성 성기문은 여신 신앙이 무엇에 초점을 두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의 여신 신앙은 건국신화에 서사된 내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단군신화에는 신왕의 어머니로 웅녀가 등장한다. 그러나 유럽, 중국동, 동아시아에서도 확인되는 곰신, 곰 여신 신앙의 맥락 안에서 해석을 시도하면 웅녀는 어머니 여신이다. 주몽신화의 유화는 전사 왕의 어머니이지만 본래는 하늘의 새 여신이었으나 물의 여신이 된 경우이다. 유화 역시 어머니 여신이다. 박혁거세 신화의 알영은 하늘의 새 여신 모습이 뚜렷이 남아 있으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배우자 여신이 되었다. 신화적 서사의 편집 과정을 거

\* 이 논문은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jjeonang@gmail.com

치며 여신의 처소와 신격이 바뀐 것이다.

한국 고대의 여신은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 어머니에서 배우자, 다시 인도자로 모습과 역할이 달라진다. 영웅과 전사의 인도자가 된 여신은 세속사회의 젊은이가 불교적 깨달음의 길을 걷게 돕는 역할도 한다. 불교가 전래되고 확산되면서 여신이 불교 신앙의 하위 신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 신앙에 의한 편집을 거치면서 신화시대의 곰 여신, 새 여신에 대한 신앙의 기억은 설 자리를 잃는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여신의 마지막 거처는 큰 산이다. 그러나 유교의 가부장적 사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여성 산신들은 산이라는 거처도 잃게 된다.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된 신의 남성화가 유교적 사고의 확산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산신의 남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신 신앙의 긴 역사는 망각의 늪 언저리까지 밀려나게 된다.

**주제어** 여신 신앙, 어머니, 배우자, 인도자, 기억, 망각

## I. 머리말

신화의 주인공은 주로 남신이다. 그리스로마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국신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의 신화 속 여신은 남신에 비해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 대부분 종속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문다. 알려진 신들의 계보에서 여신의 수는 상위 신으로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런 까닭에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여신이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역사기록이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듯이 신화도 이면에 여러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신화 서사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신과 남신의 관계도 이를 통해 변화의 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 여신이 처음부터 종속적이거나 보조적인 존

재였는지, 여신의 지위와 능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유적 발굴이나 조사를 통해 알려지고 수습된 선사시대 신상들은 여신상이 압도적으로 많다.<sup>1)</sup> 신상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하거나 몸 전체가 날렵한 차이는 있어도 여성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위그림도 마찬가지이다. 암채화나 암각화로 남은 선사시대의 예술작품에도 여신 인식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성기 표현도 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선사시대 여신들과 역사기록 속의 신이며 영웅들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다.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되었다가 사라진 사건들이 공백 안을 채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 기록이 여러 주체에 의해 여러 차례 수정되고, 기억의 편집도 계속되었다면 그 과정을 거꾸로 짚어나가 그 일부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겹쳐 쓴 기록의 아래 층에서 처음 새겨진 기억의 일부라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선사와 역사 사이의 공백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 자락이라도 찾아내려는 시도이다. 신화로 이야기 되는 역사, 역사 안의 신화를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연과 세계 질서에 대한 관념과 인식의 변화과정을 짚어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신화가 처음 이야기 되던 시기가 여신의 시대였다면 남신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신화에서 역사로 시간의 무대가 바뀔 때 여신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원래의 여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달라진 관념과 인식에 처음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한국 선사시대 신앙의 흔적과 고대의 신화 사이에 여신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는가? 한국의 여신 신앙 전개 과정이 동아시아 이웃의 그것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가?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기록과 유물, 유적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

1) 마리아 김부타스, 『여신의 언어』 고혜경 역 (서울: 한겨레출판, 2016), 도판1~16 참조.

## II. 여신의 모습

### 1. 유물, 유적

울산 신암리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된 토제 여성상은 토르소처럼 몸체만 남아 있다(그림1).<sup>2)</sup> 남은 상태로도 애초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감이 강조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정한 부위가 과장된 상태지만 허리를 잘록하게 나타내는 등 맵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 지은 점에서 유럽이나 중근동 선사유적에서 발견되는 가슴, 배, 엉덩이가 풍만하거나 심하게 과장된 비너스상과는 구별된다(그림2).<sup>3)</sup> 여성의 성적 특징을 강조한 신석기 조소상이라는 점에서 신암리유적 출토 여성상은 여신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sup>4)</sup> 한국의 다른 신석기유적에서 울산 신암리 여신상에 비견될 만한 매력적인 여성 조소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용기 서포항유적 3기층에서 수습된 사슴뼈 조각도 여신상임은 확실하다(그림3).<sup>5)</sup> 위에는 사람 얼굴을 새기고 긴 몸체 가운데에 중심점과 둘레 점 여럿을 나타낸 점에서 이 뼈 조각은 성기의 기능을 강조한 여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sup>6)</sup> 같은 서포항유적 4기층에서 발견된 토제 여성 동체 역시 여신상으로 해석됨을 감안하면 서포항 신석기유적 3기층과 4기층 주인공들의 삶에서 여신이 지니고 있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2) 국립중앙박물관, 『신암리 I』 (서울, 1988); 국립중앙박물관, 『신암리 II』 (서울, 1989).

3) 전호태, 「한국의 선사 및 고대 초기 예술과 반구대암각화」 『역사와 경계』 85(2012), 5~6쪽.

4) 임세권, 「선사시대의 예술과 신앙」 『한국고대사입문』 1 김경배 편저(서울: 신서원, 2006).

5) 김용간서국태, 「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론문집』 4 고고학연구소 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6)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시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좌로부터 <그림1> 울산 신암리유적 출토 여신상, <그림2> 차탈휘육 신석기유적 출토 여신상(터키), <그림3> 웅기 서포항유적 3기층 출토 여신상 모사선화

서포항유적 3기층 출토 골제 여신상에서 성기가 강조되었다는 사실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쳐 다수 제작되는 한국 암각화 유적의 여성 성기 표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울산 천전리 암각화 기하문에는 여성 성기를 표현한 사례들이 다수 보인다(그림4).<sup>7)</sup> 천전리 암각화의 기하문 암각은 청동기시대 작품으로 편년된다.<sup>8)</sup> 이를 감안하면 청동기시대에 이르면서 생명 출산과 재생의 주체인 여신을 나타내는 방식의 하나로 여성 성기 표현이 선호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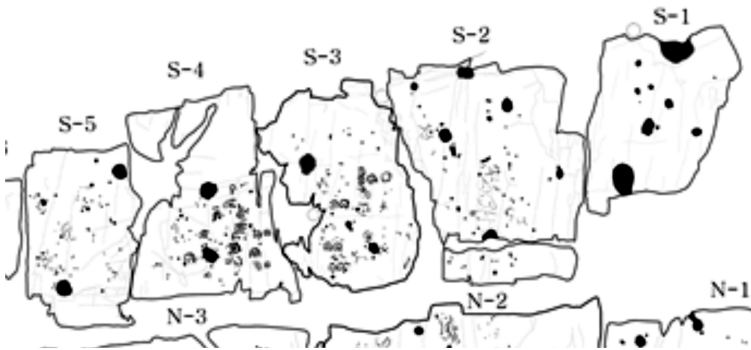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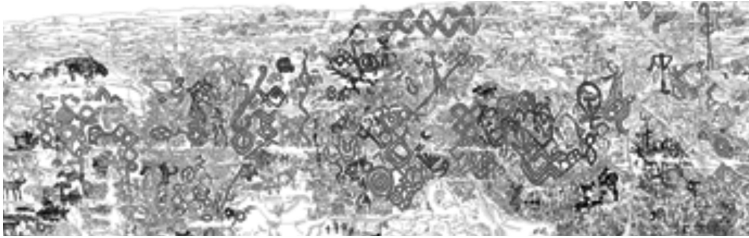
여성 성기문은 한국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주요 제재 가운데 하나

7) 천전리 암각화 실측도와 암각문 분류, 통계는 전호태, 장명수, 강종훈, 남연의, 윤효정, 『울산 천전리 암각화』 (울산: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4) 참조.

8) 전호태,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서울: 한림출판사, 2014), 189쪽.

9) 여성 성기문은 유럽 신석기시대 암각화의 주요한 제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예술적 표현 전통은 유럽과 중근동의 청동기시대로 이어진다 (마리아 김부타스, 『여신의 언어』, 237~245쪽). 여성 성기문은 구대륙 선사시대에 선호된 암각화 제재의 하나이다.

이다. 안동 수곡리암각화에서 여성 성기문은 중심 제재이다.<sup>10)</sup> 경주 석장동암각화에서 여성 성기문은 검파문, 석검문과 동반되는 주요한 제재의 하나이다(그림5).<sup>11)</sup>



위로부터 <그림4>울산 천전리 암각화 기하문, (그림5) 안동 수곡리 암각화(바위S)

포항 칠포리암각화에도 검파문, 석검문과 함께 다수의 여성 성기문이 등장한다.<sup>12)</sup> 밀양 안인리암각화는 고인돌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무덤 석벽의 적석에 석검문과 함께 여성 성기문이 새겨졌다.<sup>13)</sup>

- 
- 10) 안동 수곡리 암각화 실측도와 암각문 분류, 통계는 전호태, 이하우, 박초아, 『한국의 풍요제의 암각화』(서울: Hollym, 2017) 참조.
  - 11) 경주 석장동 암각화 실측도와 암각문 분류, 통계는 전호태, 이하우, 남연의, 박초아, 『한국의 검파형 암각화』(서울: Hollym, 2016) 참조.
  - 12) 위의 책.
  - 13) 전호태, 이하우, 박초아, 『한국의 풍요제의 암각화』 참조.

## 2. 기록

단군신화의 熊女는 기록으로 남은 가장 이른 시기 여성의 모습이다. 호랑이와 곰이 신단수 아래서 사람이 되기를 빌었고, 동굴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기사<sup>14)</sup> 말 그대로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이 된 곰, 웅녀가 하늘 최고신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하여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을 낳는다는 이야기도 신화적 사고의 영역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웅녀의 본 모습은 여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남신과 여신의 결혼으로 난 신의 아들이 나라를 세운다는 고대적 관념이 단군신화 줄거리의 핵심이다.

고구려의 시조 왕 주몽의 어머니 柳花가 여신이라는 사실은 그가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는 표현을<sup>17)</sup> 통해 잘 드러난다. 물의 여신인 유희가 빛의 신인 해모수와 짝을 이룬다는 설정도 하늘과 땅, 빛과 물의 만남이 새 역사의 장을 연다는 고대인의 관념을 잘 보여준다. 고구려인은 시조 동명성왕 주몽이 하늘과 땅에서 자연을 주재하는 힘을 부여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하겠다.

신라에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남신과 여신의 신성결혼으로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sup>18)</sup>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 전하는 시조 왕 이야기의 서

---

14) 『三國遺事』 권1, 「紀異」 1, 古朝鮮 王儉朝鮮.

15) 곰을 인간의 동족이나 조상으로 여기며 펼쳐낸 신화적 서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확인 된다(나카자와 신이치, 『곰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김옥희 역, 서울: 동아시아, 2003, 71~93쪽; 미셸 파스트로, 『곰 몰락한 왕의 역사』 주나미 역, 서울: 오롯, 2014, 85~115쪽).

16) 그리스로마신화의 여신 아르테미스도 본래는 곰 여신이었다.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어린 여성들은 작은 곰들이라고 불렸다(조지프 캠벨, 『여신들』 구학서 옮김, 서울: 청아출판사, 2016, 205쪽).

17) 『三國遺事』 권1, 「紀異」 1, 高句麗.

18) 『三國遺事』 권1, 「紀異」 1, 新羅始祖 赫居世王.

사 구조와는 구별되는 관념이 신라 건국신화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신라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서 내려온 남신 朴赫居世와 여신 閼英의 나라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이웃 나라에 강하게 드러냈을 수 있다.

여신 웅녀가 자연에서는 꿈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면 유화와 알영은 새의 모습으로 신성의 일면을 비추어낸 듯하다. 물의 여신인 유화가 熊心淵에 유배 되었다가 쇠그물에 걸려 나왔을 때, 입이 새부리처럼 길게 늘어난 상태여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기사에서<sup>19)</sup> 물의 신이면서 새의 속성을 지닌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알영은 鷄籠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을 때, 닭 부리 아기여서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다.<sup>20)</sup> 알영이 본래는 새로 자신을 보여주는 하늘의 여신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천신 夷毗訶之에 감응되어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시조 왕을 낳은 어머니 여신이다.<sup>21)</sup> 대가야 사람들에게 의해 산신으로 인식되고 신앙되었다는 점에서 정견모주는 물의 여신이면서 새 모습의 신인 유화, 알영과 구별된다. 그러나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시조 왕 惱室朱日과 惱室靑裔가 처음에는 알로 세상에 나왔다는 알터마을 민간전승은 산의 여신 정견모주가 새의 속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sup>22)</sup> 6가야 시조가 상자에 담긴 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김해 金官國 시조설화를<sup>23)</sup> 염두에 두고 정견모주 설화를 읽는다면 새 여신 인식이 가야지역에도 존재했다고 보아도

19) 『東國李相國集』 권3, 「古律詩」, 東明王篇 并序; 유화가 유배된 곳이 熊心淵이라는 사실도 유의할 부분이다. 유화에게도 꿈 여신 웅녀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0) 『三國遺事』 권1, 「紀異」 1, 新羅始祖 赫居世王.

2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建置沿革條; 『輿地圖書』 下, 慶尙道 高靈 建置沿革條..

22) 최광식, 「대가야의 신앙과 제의」 『가야사 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대구: 경상북도, 1995), 259쪽.

23) 『三國遺事』 권2, 「紀異」 2, 駕洛國記.

무방할 듯하다.

정견모주 외에도 삼국시대의 기록에서 여성 산신의 존재는 비교적 자주 확인된다.<sup>24)</sup> 신라 남해거서간의 왕비 운체는 雲梯山聖母가 되었다.<sup>25)</sup> 신라 눌지마립간 시대 인물인 박제상의 아내는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다 鵝迹嶺神母가 된다.<sup>26)</sup> 진평왕 시대에 안흥사 불전의 수리 비용을 낸 이는 仙桃山聖母이다.<sup>27)</sup> 화랑 김유신이 고구려인 첩자 백석에게 속아 그를 따라 고구려 내정을 탐지하기 위한 길을 떠나자 이것이 속임수임을 알려주고 유신의 생명을 구해 준 세 여인은 奈林, 穴禮, 骨火의 산신이다.<sup>28)</sup> 고승 智通이 동자승 시절 여성 산신 辨財天女の 인도로 스승이 될 朗智를 만난다.<sup>29)</sup> 대가야 멸망 이후에도 정견모주는 가야산 산신으로 인식되고 신앙되어 해인사의 산신각인 正見天王祠에 모셔진다.<sup>30)</sup> 정견모주의 사례로 볼 때, 통일신라 말기에는 여산신, 여천왕이라는 관념이 낫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4) 손진태는 고대사회 산신은 본래 여성이었음을 지적하였다(孫晋泰, 「朝鮮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震壇學報』 1, 1934)

25) 『三國遺事』 권1, 「紀異」 1, 第二 南解王.

26) 『三國遺事』 권1, 「紀異」 1, 奈勿王:金(朴)堤上.

27) 『三國遺事』 권5, 「感通」 7, 仙桃聖母 隨喜佛事; 이장웅은 仙桃聖母도 신라 시조신화의 주인공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장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變化와 國家祭祀」 『신라사학보』 38, 2016, 225~230쪽).

28) 『三國遺事』 권1, 「紀異」 1, 金庾信; 나림은 경주의 낭산, 곧 명활산으로, 혈레는 경주의 단석산, 영일의 아래산, 청도의 오리산 가운데 하나로, 골화는 영천의 골화산으로 비정된다. 세 산은 신라 산천제사 중 大祀의 대상이다(『三國史記』 卷32, 「雜志」 1, 祭祀).

29) 『三國遺事』 권5, 「避隱」 8, 朗智乘雲 普賢樹.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陝川郡 祠廟; 『韋庵文稿』 卷一, 「內集」 賦, 「遊伽倻山賦」 (栗谷 李珣); 『輿地圖書』 下, 慶尙道 陝川 壇廟條.

### Ⅲ. 어머니 배우자, 인도자

중국의 신화에는 女媧, 西王母라는 이름의 여신들이 등장한다. 문헌에 따라 이 여신들의 모습이나 역할, 상호관계 등에 혼란이 보이지만 둘 다 남신과 여신 이전의 존재, 陰陽을 아우른 신이었다는 점에서는 같다.<sup>31)</sup> 신중의 신, 신을 낳는 신, 신들의 어머니였던 여신들이다.<sup>32)</sup>

신들의 어머니였던 이 여신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신으로 모습이 바뀐다. 여와에게는 伏羲라는 짝이, 서왕모에게는 東王公이라는 배우자 신이 생긴다.<sup>33)</sup> 신화에 이 두 여신이 각각 독자적으로 신화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다가 배우자 신과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것은 여신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난 까닭이다.

일본의 신화에는 첫 신들의 명을 받은 남신 이자나기와 여신 이자나미가 아기 낳듯이 일본 열도의 섬들을 배고 낳는 장면과 최고신으로서 여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수많은 남신과 여신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함께, 잇달아 그려진다.<sup>34)</sup>

31) 중국의 사천지역에서는 후한시대까지 서왕모가 음양통합적 존재로 인식되고 신앙되었다(전호태, 『중국의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서울: 숲, 2007, 72~78쪽).

32) 어머니 신이자 창조주로서의 여신의 모습은 유럽이나 중근동 신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된다(조지프 캠벨, 『여신들』, 67~115쪽); 중국신화에서는 창조신으로서의 여신의 모습만 남아 있다(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서울: 민음사, 2007, 61~69쪽). 이는 주-진-한 시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신화의 역사화로 말미암은 듯하다(사라알란, 『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 오만중 역, 서울: 예문서원, 2002, 103~129쪽).

33) 전한시대와 달리 후한시대에는 서왕모의 짝으로 동왕공이 등장하여 화상과 벽화로 함께 표현된다(전호태, 『중국의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41쪽).

34) 『日本書紀』 「神代上」;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는 남신으로도, 여신으로도 전해진다. 이는 이 신이 본래는 兩性具有의 原神, 곧 신들의 어머니

신들이 일으키는 여러 사건 속에서 새로운 신들이 출현하고, 옛 신들이 무대 이면으로 퇴장하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펼쳐진다. 역사시대에 기원과 계열이 서로 다른 신화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과 일본의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최고신으로서의 여신이다. 신들의 어머니 신으로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나 최고신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점에서는 같다. 물론 중국의 신화에서 최고신으로서 여신의 모습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다. 일본 신화에서도 최고신으로서의 여신은 세상의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신들의 세계가 아닌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주역은 대개 남신들이다.

중국 紅山 牛河梁 신석기유적 출토 여신상은 신석기시대 여신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이다.<sup>35)</sup> 복희, 여와의 모신으로 이야기 되는 여신이 어느 시기의 종교문화에서 비롯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복되어 이야기 되는 문명 개창자들의 신비한 출생이 어떤 관념을 바탕으로 했는지, 왜 신적 존재들의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배우자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배고 낳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로 사용할 수도 있다.<sup>36)</sup>

일본 창세신화의 최고신이자 해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이미지는 역사시대 왜의 여왕 히미코에 덧씌워져 있다. 야요이시대 후기의 쟁란을 진정시킨 인물로 묘사되는 여왕 히미코는 연맹체 왕국의 상징적인 지배자로 국가 내부의 세세한 통치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sup>37)</sup> 연맹체에 참여한 작은 나라의 왕이나 지배자들을 다수의 남신

---

여신이었음을 시사한다(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해와 달」 『미술자료』 50, 1992, 52쪽).

3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牛河梁 : 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 : 1983~2003年度』 (北京: 文物出版社, 2012).

36) 처녀 잉태와 출산은 어머니 여신이 창조신이라는 관념, 신을 낳고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 1, 이용주 역, 서울: 이학사, 2005, 97쪽, 377쪽).

으로 상정한다면 여왕 히미코는 이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막는 어머니 여신에 해당한다.<sup>38)</sup> 여왕 히미코의 뒤를 이은 男王의 시대에 정란이 재발되자 여왕을 다시 옹립하여 야마대국을 안정시켰다는 기사 역시 여왕의 역할, 여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sup>39)</sup> 어머니 여신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여왕이 신정정치를 펼치는 상태가 아니면 신들, 혹은 영웅들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울산 신암리유적, 웅기 서포항유적에서 출토된 여신상들은 두 지역 신석기문화의 주인공들이 여신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음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웅기 서포항유적 출토 사슴뼈 조각상은 성기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신석기인들이 어머니 신으로서 여신의 능력에 주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40)</sup>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여성 성기 표현은 신석기 종교 신앙의 이와 같은 측면을 계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성기문이 중심제재인 안동 수곡동암각화가 청동기시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신석기시대 여신 신앙과 깊숙이 연결된 경우라면, 검파문이나 석검문이 주류를 이루고 이런 암각문 사이에 여성 성기문이 표현된 경주 석장동암각화는 청동기시대 종교 신앙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석검문이 남성 성기를 나타낸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면 석검문과 여성 성기문을 함께 새긴 청동기인들의 관념

37) 남편이 없고 남동생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는 여왕 히미코는 鬼道を 섬기며 궁궐 깊은 곳에 머무르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한 통치자다(『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倭).

38) 물론 이들은 현실세계의 존재였으나 현실정치의 전개과정에서는 자연스레 신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중국 商 왕조의 先王들은 조상신으로 높은 신격을 부여 받고 제사되었다(사라알란, 『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 105~129쪽). 일본의 神道와 神社 체제도 이런 관념이 역사적으로 커져서 쌓이면서 현실세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9)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倭.

40) 후기구석기 시대에 유럽의 바위 동굴에 새겨진 여성 성기는 여신의 표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마리아 김부타스, 『여신의 언어』, 99~101쪽). 신석기시대에는 여성 성기가 돌로 조각되거나 토기에 그려지는 사례가 빈번해진다.

속에서 여신은 남신의 배우자로 인식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sup>41)</sup> 산기슭 바위에 검파문, 석검문, 여성 성기문을 함께 새긴 포항 칠포리 암각화 의 주인공들도 남신의 배우자로서의 여신을 머리에 떠올렸을 수 있다.

단군신화는 최소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신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깔고 성립되었다고 이해된다. 동굴에서 사람이 된 웅녀는 꿈신으로 숭배 받던 존재로 유럽의 사례로 보면 후기 구석기시대 이래의 신앙 대상이다.<sup>42)</sup> 웅녀의 배우자로 등장하는 환웅은 신석기시대까지는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은 하늘의 신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하늘의 남신이 신화세계를 주도하게 된다.<sup>43)</sup> 신의 유래와 존재 방식을 전제로 환웅과 웅녀의 신혼을 평가한다면 신석기적 사유와 청동기적 관념의 만남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檀君王儉의 출생과 고조선 건국은 시기를 달리하는 관념과 인식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결과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군신화 속의 웅녀는 어머니 여신 본래의 모습을 이미 상당 부분 잃은 상태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신이던 꿈은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神王 단군왕검을 배는 과정에서 어머니 여신으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늘의 신 환웅에게 깊이 의지한다. 신화에서 이야기 되는 웅녀는 신의 어머니이자 신의 배우자이다. 신들의

- 
- 41) 암각으로 새겨진 검은 남성의 성적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이하우, 『한국 암각화의 祭義性』, 서울: 학연문화사, 2011, 279~291쪽). 일본에서는 과중 때에 물의 여신에게 남성의 상징인 목검을 바치는 의례가 행해졌다(中村愼一, 「農耕の祭り-オハセ形と水口の祭り」 『古代史の論点5 -神と祭り』 東京: 小学館, 1999, 106~108쪽). 한국의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에서도 검을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농경제사에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조현중, 「光州 新昌洞遺蹟의 農耕祭祀」 『稻作農耕社會의 祭祀와 儀禮』,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2014, 15~20쪽).
- 42) 마리아 김부타스, 『여신의 언어』, 116~117쪽;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후기 구석기시대 이래 꿈 신앙의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다.
- 43) 조지프 캠벨, 『여신들』, 25~29쪽, 163~175쪽; 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150~164쪽.

어머니가 아니다. 이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행하면서 신앙의 중심 대상이 바뀐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sup>44)</sup> 유럽 및 중근동, 중국과 일본 신화의 사례로 볼 때, 신의 계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sup>45)</sup>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배우자로서의 여신 관념이 두드러지게 되는 현상은 동아시아 신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럽과 중근동의 신화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sup>46)</sup> 주목되는 것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신 신앙의 바탕이기도 한 어머니 여신 관념이 자취를 감추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후의 역사에서 어머니 여신 신앙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표출된다.

고구려의 시조 왕 주몽은 신왕이기보다는 戰士王에 가깝다. 해신 해모수, 물의 여신 유화를 부모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몽은 고초를 겪고 이겨낸 뒤 나라를 세우는 영웅이다. 주몽신화에서 유화는 여신이면서도 부여 왕의 궁실에서 지내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신의 배우자였으나 사실상 버림받은 존재이다. 왕자 주몽을 낳았으나 신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인정받지는 못한다. 주몽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무대에서 유화는 중요한 조연 이상은 아니다. 세속화 된 신화적 서사 속에서 어머니 여신으로서 신적 지위는 잃었으나 성모로서의 존재감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44) 신석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로 이행하면서 신화적 상징이 재해석 되어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동심원에 대한 해석도 그중 하나이다(아리엘 콜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정석배 역, 서울: 푸른역사, 2004, 59~64쪽).

45) 후기 청동기시대를 전후하여 남동유럽과 중근동에서 최고신으로서의 여신의 위상이 유지되지 못하고 남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의 신화 서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조지프 캠벨, 『여신들』, 114~120쪽). 중국에서 三皇五帝를 중심으로 한 신화전설이 성립하는 시기도 청동기시대의 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사라 알란은 주 왕조 이후 한 왕조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시기에 걸쳐 삼황오제의 역사적 실체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사라알란, 『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 105~129쪽).

46) 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 1, 422~441쪽.

배우자로서 여신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신화적 서사는 신라의 건국신화이다. 박혁거세와 알영은 남신과 여신의 상태로 짝을 이루고 신라의 첫 왕, 왕비가 된다.<sup>47)</sup> 신화적 의미에서 계룡은 하늘과 땅, 빛과 물을 아우를 수 있는 존재다.<sup>48)</sup> 계룡의 몸에서 난 알영도 계룡이므로 두 세계를 아우르는 여신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여신은 하늘에서 내려온男神과 짝을 이룬다. 박혁거세와 알영의 神婚은 서로 다른 시기의 관념, 인식이 접촉, 융합하는 과정이다.

알영은 본래 하늘의 어머니 여신이나 신라 건국신화 속에서 신왕의 배우자로 그려진다. 시대가 바뀌면서 신화적 서사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여신으로서 알영의 정체성이 어머니 여신에서 신의 배우자로 재규정되면서 신격의 위상이 떨어진 셈이다.

대가야 건국신화의 주인공은 산신 정견모주다. 이비까지는 천신이면서도 산의 여신 정견모주의 배우자라는 이미지가 더 두드러진다.<sup>49)</sup> 천신보다 격이 떨어지는 산신으로 재인식 되었을 뿐 정견모주의 위상은 신화 성립 초기의 어머니 여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시대에 들어와 신화적 서사가 다시 이루어질 때 정견모주의 신격, 신명만 수정되고 본래의 이야기 틀은 이전의 것을 유지했기 때문일 수 있다. 천신 이비가지가 신격과 명칭으로만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삼국시대 후기의 여신 인식과 관념은 이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격심한 전란이 계속되면서 신화적 서사의 설득력이 사회적, 문화적 한계를 보이는 것과 관련된 현상인 듯하다. 신왕에 의한 신정 정치나 전사 왕의 권위를 높이는 신성 계보가 전란에 내몰리

47) 『三國遺事』 권1, 「紀異」 1, 新羅始祖 赫居世王.

48) 사라 알란은 중국 상대의 신화적 사유를 분석하면서 서쪽 若木의 뿌리에서 황천의 물을 따라 동쪽의 扶桑 뿌리로 헤엄쳐 가는 태양새는 부리 달린 용과 동일한 존재라고 보았다(사라알란, 『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 242쪽).

49) 전호태, 「대가야 건국신화와 고령 장거리 알터암각화」 『한국암각화연구』 21(2017), 2쪽.

는 중하층 귀족과 일반 백성에게 희망의 동아줄이 되지는 못했기 때 문일 것이다. 삼국시대 중기부터 본격화 된 불교의 전래와 확산, 유교 의 유입과 정착, 이로 말미암은 세계관의 전환 역시 여신 인식과 신 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을 힘들게 버텨내던 7세기 중엽 신 라의 기둥 무장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김유신이 화랑 시절 고구려 첩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북행을 시도할 때 이를 막아 미래의 대장군 을 살린 산신 셋은 여신이다.<sup>50)</sup> 후에 신라 大祀의 대상으로 편제되는 나림, 혈례, 골화의 여산신들은 신라를 지킬 자를 보호하고 그가 갈 길을 인도했다고 할 수 있다.

산을 지키는 여신은 불교의 고승이 될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7살 에 출가한 신라의 지통은 스승 양지를 만날 때에 산의 주인 변재천녀 의 인도를 받는다.<sup>51)</sup> 물론 이 경우 여산신으로 일컫는 변재천녀는 이 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래의 가르침에 귀의한 존재다. 해인사에 천왕 으로 인식되고 모셔졌던 가야산의 여산신 정견모주의 사례를 고려하 면 통일신라 후기까지 불교사원의 산신각 가운데 여신을 주신으로 모 신 다른 경우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IV. 기억과 망각 사이

신석기시대 이후 고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신에 대한 관념과 신 앙은 어머니에서 배우자, 인도자로 변했다. 물론 어머니 여신, 배우자 여신, 인도자 여신에 대한 인식이 단계적으로 이전과 선을 긋는 방식 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새로운 관념이 이전의 인식을

---

50) 『三國遺事』 권1, 「紀異」 1, 金庾信.

51) 『三國遺事』 권5, 「避隱」 8, 朗智乘雲 普賢樹.

대체하는 시기와 방식에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새로운 관념과 신앙이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이 이전의 관념과 신앙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소멸시키는 경우다. 유럽에서는 기독교, 중근동에서는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과정이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이전의 것을 새로운 관념과 신앙 속에 흡수하는 방식이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존의 관념과 신앙이 새로운 것에 대응하는 과정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관념과 신앙이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고 틈을 주지 않고 단호히 밀어내려 하나 여의치 않을 때는 새로운 것의 하위체계에 편입되어 그 일부가 되거나 위축된 상태로나마 사회·문화 구성요소의 일부로 남는다. 연원이 오랜 여신 인식과 관념은 시대가 바뀌고 체계화 된 새로운 종교 관념이 잇달아 전래되는 와중에 사회 습속의 바탕을 이루거나 새 종교의 하위 신앙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듯하다.

신들의 어머니 여신이라는 관념은 신화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적, 유물에서 이런 관념의 실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된 여신상이 신석기인들에게 어머니로서 여신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도이다. 남녀의 성기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청동기시대 암각화 역시 청동기인들이 지니고 있던 배우자로서 여신 관념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할 뿐 그 이상의 정보를 전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으로 남아 전하는 고대의 건국신화를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적, 유물로 남은 신앙 및 성기 표현과 어우르면 여신 관념의 변화 과정을 일부 되살려낼 수 있다. 잊힌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기억되는가?

단군신화의 웅녀는 곰신, 곰여신에 대한 오랜 기억이 담긴 존재이다. 곰신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아시아 많은 민족의 신앙

대상이다.<sup>52)</sup> 일본에서 고구려를 가리키는 명칭이던 ‘고마[貊]’가 곰에서 비롯된 말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백제의 두 번째 서울 웅진도 우리말로 풀어 읽으면 곰나루이다. 신화 내용으로도 고조선의 건국은 곰 여자 웅녀에서 비롯되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모두 곰신 신앙과 관련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남은 기록이나 유물, 유적으로 볼 때 곰신, 곰여신 신앙이 고조선 멸망 이후까지 역사무대의 전면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단군신화 외에 웅녀와 관련된 신화적 서사가 전하지 않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가 열릴 즈음에는 곰신, 곰여신 관념이 민간 신앙에만 흔적을 남길 정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각저총 벽화 씨름도에 보이는 큰 나무 밑동의 곰과 호랑이는 신화시대의 기억으로 남아 있던 호랑이신, 곰신 신앙을 형상화 한 마지막 장면인지도 모른다(그림6).<sup>53)</sup>

고구려 건국신화와 신라 건국신화는 삼국시대가 개막되던 시기의 새 여신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게 한다. 곰신, 곰여신 신앙과도 공존했던 새 여신 신앙은 신석기시대가 열릴 즈음 유럽과 중근동에서는 보편적인 관념에 가까웠다.<sup>54)</sup> 중국 신화에서도 새 여신의 존재는 확인 가능하다.<sup>55)</sup>

신화 내용으로 보아 주몽의 어머니 유화, 박혁거세의 배우자 알영은 본래 새 여신이었다.

---

52) 나카자와 신이치, 『곰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미셀 파스트로, 『곰 몰락한 왕의 역사』.

53) 이 장면은 단군신화와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다(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 2000, 47쪽)

54) 마리아 김부타스, 『여신의 언어』, 316~317쪽.

55) 후한시대 석서 및 산서 일원에 조성된 화상석묘에는 머리는 닭이고 소인신이 동과 서에서 마주보며 崑崙懸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닭 머리 신이 서왕모인 경우도 있고, 동왕공인 경우도 있는데, 남녀 복장으로 구분 가능하다. 새의 모습을 한 신 관념이 후한 시대에도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전호태, 『중국의 화상석묘 고분벽화 연구』, 103~105쪽).



좌로부터 <그림6> 나무 밑동의 곰과 호랑이(각저총, 중국 지안), <그림7> 솟대(농경 문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

유화는 길게 늘어진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할 수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 알영은 복천에 씻기고 나서야 입에 붙은 새 부리가 떨어져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다. 알영은 계룡이 낳았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닭 여신이라는 정체성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유화는 하백이 딸의 입술을 잡아 늘어 별주었다는 설명이 알려 주듯이 새 여신이었던가 강의 신 하백의 딸로 변신한 경우이다.

유화와 알영에 대한 신화적 서사는 선사시대 새 여신 신앙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여신의 정체와 신격이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유럽과 중근동의 신석기 사회에서 새 여신 신앙은 상당한 종교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새 여신의 거처가 하늘로 상정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들을 시녀로 거느린 중국 신화의 서왕모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던 신으로 그가 다스리던 곤륜현포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아무나 닿을 수 없게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호리병 형태의 산 위이다.<sup>56)</sup>

56) 崑崙…山高平地三萬六千里 上有三角 方廣萬里 形似偃盆 下狹上廣 故名曰崑崙山 『十洲記』

서왕모는 우주산, 우주기둥의 꼭대기, 신화적 의미에서는 땅의 가장 높은 곳이자 하늘 세계이기도 한 성스러운 곳에 살고 있었다.<sup>57)</sup>

이런 신화적 서사를 감안할 때, 역사시대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유희와 알영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거나 낮아지고 있음은 확실하다. 건국신화에 묘사된 두 여신은 각각 물의 여신, 아기 계룡이다. 유희는 하늘과 관련된 여신의 속성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이고, 알영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물의 여신에 가까워지고 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신화는 곰신, 곰여신의 신앙처럼 새 여신의 신앙도 역사시대에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삼한시대 弁辰 사람들은 새를 영혼의 인도자로 여겨 죽은 이의 관 위에 큰 새의 깃털을 올려놓았다.<sup>58)</sup> 대전 출토 농경문 청동기에 표현된 솟대위의 새는 새를 신성시 한 삼한시대 신앙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그림7). 그럼에도 삼국시대에 접어드는 시기의 신화적 서사는 새 여신이 더 이상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곰신, 곰 여신의 신앙의 경우와 같이 삼국시대라는 새로운 역사 무대가 마련될 즈음에는 새 여신 신앙도 신화적 기억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곰과 새에 대한 신앙은 생명과 죽음의 관장자라는 여신의 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 어머니로서 여신에 대한 신앙 또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확인되고 발휘되는 여성 본래의 역할이 신화적 외피를 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시대에 접어든 이후 일정 시점부터 정치와 종교 등에서 여성의 영역이 축소되고 사회적 역할이 위축되었다면 여신에 대한 신화적 서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57) 海內昆侖之虛 在西北 帝之下都 崑崙之虛 方八百里 高萬丈 上有木禾 長五尋 大五圍 面有九井 以玉爲攬 面有九門 門有開明獸守之 百神之所在 在八隅之巖 赤水之際 非仁羿莫能上岡之巖 『山海經』 「海內西經」；崑崙之山有銅柱焉 其高入天 所謂天柱也 圍三千里 周圍如削 下有回屋 方百丈 仙人九部治之 『水經注·河水』 卷一所引 『神異經』 「中荒經」

58)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弁辰.

일본 야요이시대 후기에 여왕 히미코와 그의 여성 후계자들이 신 왕으로 인식되고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과정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국들 사이의 쟁란을 신적인 권위로 조정하고 진정시키던 야마대국의 여왕들이 고훈시대의 전야에 남왕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신왕의 신비스런 권위로선 이전보다 강력해진 전사 집단 왕들 사이의 권력 투쟁을 막을 수 없게 된 까닭일 것이다.

어머니 여신의 이미지가 약화되고, 여신이 신왕이나 전사 왕의 배우자로 더 강하게 관념되는 과정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자연 질서의 주관자로서 동물 여신 신앙의 쇠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무대에서 여성이 어머니일 수밖에 없듯이 어머니로서 여신 관념 또한 완전히 망각되기 어렵다.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남게 마련이다. 시조 왕들의 어머니들에게 여신의 면모가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조 왕의 계보에 같은 인물이 어머니로도, 배우자로도 서술되는 것은 신화적 서사가 역사 기록으로 정착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여신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였고 뒤에는 배우자인 까닭이다.

역사 전개에 따라 여신 인식은 어머니에서 배우자로, 다시 인도자로 바뀌어 나가고, 때로 두 가지, 세 가지 관념이 병립하고 혼재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동물 여신 인식은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다가 망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미 언급하였듯이 동물 여신 신앙의 쇠퇴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축소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청동제 儀器의 권위로도 제압되지 않는 철기 무장 전사 집단의 등장이나 소국 수준을 넘어선 지역 국가의 출현 등의 새로운 정치, 사회 현상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사 집단의 남왕이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고 행사한다면 여신 신앙 중심의 사회 질서는 해체,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이 이전의 의미와 가치를 상당 부분 잃은 상태임이 확실한 까닭이다.<sup>59)</sup> 곰 여신이나 새 여신 신앙이 설 자리도 사실상 사라진 뒤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

다.

불교의 동방 전파는 여신이 영웅이나 전사의 인도자로 자리 매김되고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던 동물들도 신격을 잃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궁녀와 승려를 간통 혐의로 죽이는 ‘射琴匣’ 사건의 조역 까마귀와 쥐, 돼지는 신화적 논리로는 巫覡이나 사제의 보조령이다.<sup>60)</sup> 신라에 불교가 전래될 즈음 동물신이라는 관념이 이미 신화적 기억 너머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래의 고승 지통이 스승을 만나게 하는 여산신은 불교의 하위 신령이 되어 본래 이름마저 잃은 상태이다.<sup>61)</sup> 그렇지 못한 전통신앙의 대상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맑은 풍경 소리를 내는 자갈돌로 변신 당한 못의 독룡들이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sup>62)</sup>

삼국시대 후기부터 확산된 유교적 사고는 여신 신앙이 더 이상 민간에도 남아 있지 못하게 압박을 가한 듯하다. 가장 큰 변화는 산신의 남성화이다. 역사시대로의 전환기에 하늘세계를 장악한 남신들이 산신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해인사 정견천왕사의 정견천왕이나 치술령의 치술신모처럼 조선시대, 혹은 그 이후까지 여산신이 살아남은 사례도 있으나 산신의 남성화라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유교의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 종교 신앙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신의 남성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유교적 사고의 확산 이전에도 신의 남성화는 대세였다. 그러

---

59) 신라의 神宮 의례를 주관하던 阿老系列 여사제장의 권위도 일정 시기에 는 왕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희라는 『三國史記』의 관련 기사를 왕가의 일원인 아로가 왕의 사제권을 분장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121~130쪽)

60) 『三國遺事』 권1, 「紀異」 1, 射琴匣.

61) 변재천녀는 지혜와 부, 장수를 가져다주는 불교의 女仙神이다. 비파를 타고 아름다운 소리로 중생을 기쁘게 한다고 하여 妙音天, 善音天으로도 불린다.

62) 『三國遺事』 卷3, 「塔像」 4, 魚山佛影; 김해 萬漁寺 玉池의 毒龍들은 본래 물의 신이었을 것이다(전호태, 『가야의 불교와 고분벽화』 울산: 울산대출판부, 2004, 18~19쪽).

나 이런 흐름에 사실상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종교·신앙사, 특히 여신신앙의 전개와 관련하여 유교가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신의 남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종교·신앙사에서 여신의 존재감은 극히 위축되었고 여신 신앙의 시대는 신화적 서사에도 제대로 남겨지지 못하게 되었다. 역사적 기억의 영역에서도 자취가 미미해졌다. 불교적 서사로 여신 신앙이 편집되었다면 유교적 사고와 논리는 여신 신앙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여신 신앙의 존재와 오랜 역사, 거듭된 변화 과정이 망각의 늪 언저리까지 밀려난 셈이다. 이후 여신 신앙의 흔적은 전설과 민담 속 지혜로운 노파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sup>63)</sup>

## V. 맺음말

한국의 신석기 유적에서 수습되는 여성상은 선사시대의 여신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유물이다.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여성 성기문은 여신 신앙이 무엇에 초점을 두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의 여신 신앙은 건국신화에 서사된 내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단군신화에는 신왕의 어머니로 웅녀가 등장한다. 그러나 유럽, 중국, 동아시아에서도 확인되는 곰신, 곰여신 신앙의 맥락 안에서 해석을 시도하면 웅녀는 어머니 여신이다. 주몽

63) 脫解를 태운 배를 발견하고 미래의 왕을 거두어 기른 阿珍義先과 같은 역사기록 속의 老嫗가 여산신인 성모, 신모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302~328쪽). ‘노구’라는 표현 자체는 여신에 대한 후대의 재인식, 혹은 수정, 가필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화의 유화는 전사 왕의 어머니이지만 본래는 새 여신이었으나 물의 여신이 된 경우이다. 유화 역시 어머니 여신이다. 박혁거세 신화의 알형은 새 여신의 모습이 뚜렷이 남아 있으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배우자 여신이 되었다. 신화적 서사의 편집 과정을 거치며 여신의 처소와 신격이 바뀐 것이다.

여신은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 어머니에서 배우자, 다시 인도자로 모습과 역할이 달라진다. 영웅과 전사의 인도자가 된 여신은 세간의 젊은이가 불교적 깨달음의 길을 걷게 돕는 역할도 한다. 불교가 전래되고 확산되면서 여신이 불교 신앙의 하위 신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 신앙에 의한 편집을 거치면서 신화시대의 꿈 여신, 새 여신에 대한 신앙의 기억은 설 자리를 잃는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여신의 마지막 거처는 큰 산이다. 그러나 유교의 가부장적 사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여산신들은 산이라는 거처도 잃게 된다.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신의 남성화가 유교적 사고의 확산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산신의 남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신 신앙의 긴 역사는 망각의 늪 언저리까지 밀려나게 된다.

## ■ 참고문헌

-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韋庵文稿』, 『三國志』, 『山海經』, 『十洲記』, 『水經注』, 『日本書紀』
- 국립중앙박물관, 『신암리 I』 (서울, 1988)
- 국립중앙박물관, 『신암리 II』 (서울, 1989)
- 김용간서국태,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학연구소, 『고고민속문물집』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시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孫晉泰, 「朝鮮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震壇學報』 1(1934)
- 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서울: 민음사, 2007)
- 이장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신라사학보』 38(2016)
- 이하우, 『한국 암각화의 祭義性』 (서울: 학연문화사, 2011)
- 임세권, 「선사시대의 예술과 신앙」 『한국고대사입문』 1 김경배 편저(서울: 신서원, 2006)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해와 달」, 『미술자료』 50 (1992)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 2000)
- 전호태, 『가야의 불교와 고분벽화』 (울산: 울산대출판부, 2004)
- 전호태, 『중국의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서울: 솔, 2007)
- 전호태, 「한국의 선사 및 고대 초기 예술과 반구대암각화」 『역사와경계』 85(2012)
- 전호태, 「대가야 건국신화와 고령 장거리 알터암각화」 『한국암각화연구』 21(2017)
- 전호태·장명수·강종훈·남연의·윤효정, 『울산 천전리 암각화』 (울산: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4)
- 전호태·이하우·남연의·박초아, 『한국의 검파형 암각화』 (서울: Hollym, 2016)
- 전호태·이하우, 박초아, 『한국의 풍요계의 암각화』 (서울: Hollym, 2017)
- 최광식, 「대가야의 신앙과 제의」 『가야사 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대구: 경상북도, 1995)

-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나카자와 신이치, 『꿈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김옥희 역(서울: 동아시아, 2003)
- 마리아 김부타스, 『여신의 언어』 고희경 역(서울: 한겨레출판, 2016)
- 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 1 이용주 역(서울: 이학사, 2005)
- 미셸 파스트로, 『꿈 몰락한 왕의 역사』 주나미 역(서울: 오롯, 2014)
- 사라알란, 『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 오만중 역(서울: 예문서원, 2002)
- 아리엘 골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정석배 역(서울: 푸른역사, 2004)
- 조지프 캠벨, 『여신들-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 구학서 역(서울: 청아출판사, 2016)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牛河梁 : 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 : 1983-2003 年度』 (北京: 文物出版社, 2012)
- 中村愼一, 「農耕の祭り-オハゼ形と水口の祭り」 『古代史の論点5 -神と祭り』 (東京: 小学館, 1999)

## ■ Abstract

# Goddess belief in Ancient Korea

Jeon, Ho-Tae\*

The female figures found in Korean Neolithic sites speak to the worship of goddesses in prehistory. The female genital motifs from Bronze Age petroglyphs suggest what the focus of the religion was. The religion of goddesses in Neolithic and Bronze Age makes itself clearer through the contents of the founding myth.

In the myth of Dangun(檀君), Woongnyeo(熊女) appears as the mother of the sacred king. Within the tradition of bear gods and the worship of bear goddesses also found in Europe, Middle East, and East Asia, Woongnyeo is a mother goddess. Yuwaha, the mother of the king in the myth of Jumong(朱蒙), is a water goddess who originally was a bird goddess. Yuwaha(柳花) also is a mother goddess. Alyoung(閼英) in Bakhyeokgeosae(朴赫居世) myth retains her original bird goddess form but has come down from the heavens to become a spous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yth, the realm and the status of the goddess changed.

Goddesses shifted from mother to spouse to a guide throughout the unfolding of history. The goddess that had become the guide for the heroes and warriors also came to lead the worldly youths down the path of Buddhist Enlightenment. As the Buddhism spread, the goddess had become the lower deity in the Buddhist religion. With the Buddhist revisions, the memories of the bear goddesses and the bird goddesses of the earlier times lost place in the narrative.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Ulsan  
/ jjeonang@gmail.com

The last refuge for the goddess that came down from the heavens to earth was the big mountain. However, as the patriarchal Confucianism took hold, the mountain goddesses also lost the mountains. The masculinization of deities that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reached its completion through Confucianism. As the male gods dominated mountains, the religion of goddesses and its long history fell into oblivion.

**Key Words** goddess belief, religion, mother, spouse, guide, memory, oblivion.

논문투고일 : 2018.08.12, 논문심사일 : 2018.08.21, 게재확정일 : 2018.09.17.